

“과일·생선 먹었나요? ... 재활용 음식 드셨습니까”
 “조화 보내셨나요? ... 다른 장례식장서 쓰던겁니다”
 “국내산 수의 입히셨다구요? ... 중국산이었습니다”

유족 눈물짜내 폭리... 악덕 장례업체 단속

경찰, 광주 38곳·전남 114곳 대상 조사 나서

광주·전남 경찰이 한 번 쓴 장의용품과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가 하면, 장례용품 재질과 원산지를 속여 이용객에게 바가지 값을 씌우는 일부 장례업체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경찰은 상을 당한 유족들이 경찰이 없는 틈을 타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체들에 대한 첩보 수집에 돌입한 상태다.

일부러 많은 음식을 주문한 뒤 반쯤 조리 받지 않는 악덕 상술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지역 5개

경찰서에 ‘장례업체 비리 특별 단속 계획’을 하달하고 장례업체 비리 단속을 본격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청은 이날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을 대상으로 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계획·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광주청은 이미 광주지역 38곳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중국산 저가 수의의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제단 화환 및 제수음식의 재사용 여부 ▲장의용품 납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료 등에 대한 광범

위한 정보를 수집 중이다. 장례업체 비리와 관련된 다양한 첩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청도 전남 114개 장례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화장장에 약을 무단으로 해놓고 이를 되파는 이른바 ‘화장장 사제기’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장례업체 비리 단속을 계기로 장례업체의 악덕 상술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황망한 틈을 타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해놓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 반쯤을 거절해

고스란히 이익을 챙기는 악덕 상술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올바른 장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부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장의용품 납품과 관련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장례식장 관계자, 유족들 몰래 장례식장 제단의 꽃장식과 제수음식 등을 재사용한 꽃집 주인, 식당 운영업자 등 6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번개탄 아버지’ 자식 죽이려다 자식 덕에 살았다

수억원 주식빚에
동반자살 하려다
아들 살아있다
전화받고 결심 바뀐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잠을 자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3일 전 번개탄 3개를 구입한 뒤 범행 당일 새벽 부모가 번개탄 집에 들어가 아들이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가 하면, 차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며 아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999년부터 주식투자를 해오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100억원대의 돈을 받아 관리해오던 중, 최근 손실이 커지면서 동반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했다.

A씨 부부는 초기에 투자에 성공하면서 최대 30%의 이익을 투자자

에게 돌려주기도 했지만, 3년 전부터는 연이어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수억에 이르는 빚을 떠안게 됐고 급기야 지난해 10월 이후 “외국 회사를 인수·합병한다”며 투자자를 속이면서 돈을 돌려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딸(18)은 대학 입시에 합격했고 커서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아들 방에만 번개탄을 피워놓고 서둘러 집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번개탄으로 자살을 결심한 A씨 부부는 그러나 딸과의 통화에서 “동생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고, 지난 14일 친척을 통해 자수의 의사를 밝힌 뒤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상품권 깡’ 박광태 전 시장 점유 4년 선고

광주시법, “잘못 인정않고 실무진에 책임 떠넘겨” ... 추징금 4100만원

광주시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신현범)는 15일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광주시 의전 담당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비서실장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은 ‘상품권 깡’을 통한 불법적인 현금화가 이뤄지는 것을 안 이상 현금 사용액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조성된 현금을 공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과다하게 지출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사용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실무 담당자들의 탓으로 돌리며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도 145차례에 걸쳐 20억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시 재정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이런 방식의 속칭 ‘상품권 깡’으로 생긴 나머지 18억원 가운데 1억8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매달 100만원, 모두 4100만원을 담보로 냈으며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7000만원, 골프 비용으로 76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시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시장을 경리관리나 회계 담당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 등 손실 혐의는 무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 중 아파트 비용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시장 측은 “당비 납부 사실이 퇴직 이후 알아 도덕적 차원에서 4100만원을 공탁했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정 수행을 위해 썼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5일 광주시 동구 금동 인쇄의 거리에 위치한 C인쇄·W출력 등 5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女 연예인 해결사? ... 검사 체포

사건 부당 개입 혐의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 받은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와 병원장 등 사건 관계인들과 부당 접촉하고 관련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도(37) 검사를 15일 체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

장)는 지난 12월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출석 직후 전 검사를 체포했다.

전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 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

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8시 열린 전담이다.

전 검사는 자신이 구속시켰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제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의혹과 최 원장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 등으로 검찰 및 수사를 받아왔다.

연습사

내연녀 동승남 흥기살해 4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15일 전 내연녀와 동승자를 흥기로 찢러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밤 9시30분경 광주시 서구 양동 D교회 앞 주택가 도로에서 주차 중인 전 내연녀 A(53)씨와, 그와 함께 있던 B(50)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5월경 절도혐의로 도피생활을 하다가 은신처를 구하기 위해 1년 간 교제해 왔던 A씨를 찾아갔으나, A씨가 오히려 자신을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예비 대학생 현금 72만원 든 지갑 주인 찾아줘



○-대학 예비

신입생이 현금 72만원이 든 지갑을 주위 주인을 찾아줘 훈훈한 화제. ○-15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호남대 예비 신입생 고병민(19)군은 지난 14일 오후 6시경 무안군 삼합읍 남악신도시 A호프집 앞길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72만원이 든 김모(48)씨의

지갑을 주위 남자와출소에 맡기고 그대로 돌아갔다는 것.

○-경찰은 지갑에 든 아파트 이름이 적힌 키를 토대로 김씨를 찾아낸 뒤 지갑을 돌려줬으며 김씨는 고군에게 연락해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고군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

무안=김민준기자 jun@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 금고를 오시면 품과 미레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초로 246번길 3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편입생 모집
 학교성립 60주년 (1954~2014)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계열 | 모 집 학 과 | 모 집 인 원 | | |
|-----|---|------------|------------|-----------------------------------|
| | | 정원내 | 정원외 | |
| | | 일반편입 (3학년) | 학사편입 (3학년) |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
| 인문 | 신 학 과 | 6 | - | - |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4 | - | - |
| 사회 | 사회복지상담학과 | 4 | 1 | - |
| | 유 아 교 육 과 | 1 | 1 | 2 |
| 예능 |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지휘, 오르간, 작곡, 컴퓨터기타, 교회음악) | 8 | - | - |
| |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포크, 일렉],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5 | - | - |
| 총 계 | | 28 | 2 | 2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4. 1. 6(월) ~ 17(금)
 · 전 형 일 : 2014. 1. 23(목) 오후 2시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터지소로 36